

<운영전>의 性 억압과 그 의미

이 병 직*

차 례

- | | |
|---------------------|-----------------------|
| I. 들머리 | III. 성 억압과 저항의 문학적 의미 |
| II. <운영전>의 구조와 성 억압 | IV. 마무리 |
| 1. 작품구조 | |
| 2. 성 억압과 저항의 양상 | |

I. 들머리

고전소설에서 남녀간의 性에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작품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나마 性이 작품 전반에 흐르는 주제의식의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고전소설에서 性이 다루어진 작품은 애정소설이나 가정소설 및 醜絶을 주제로 다룬 작품에서 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애정소설인 <주생전>, <춘향전>에서는 性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가정소설에서는 性이 신분상승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¹⁾ 작품 전반의 주제의식 차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醜絶소설에서는 주로 남성에 대한 醜絶을 목적으로 남성사대부 중심의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사씨남정기>에서 교씨가 정실이 되기 위해 자기 육체를 성의 수단으로 삼아 동청에게 몸을 허락하여 유한림에게 접근하는 것을 대표로 들 수 있겠다.

시각에서 性を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서의 性は <운영전>과는 그 차원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운영전>은 性を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의식의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²⁾ <운영전>에 나타난 性 문제는 당대의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동시에, 또 작품에서도 그것을 매우 실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조 사대부들은 성에 대한 문제를 가급적이면 은폐하고 노출시키기를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직되고 폐쇄적인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예교의 발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능일 것인데,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가 도덕적인 예교와 상충될 경우 조선조 사대부들은 대부분 성을 억제하고 도덕이라는 이름하에 이들을 억압하고 발설하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운영전>에서의 성 억압과 저항은 권력의 억압에 대한 궁녀들의 인간성 회복과 투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폐쇄된 궁중사회에서 궁녀들이 보인 성에 대한 태도는 인간 개체의 본능적 욕구의 발현인 동시에 인간성 긍정을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작품은 권력에 대한 억압이 성의 억압으로 나타난 특이한 작품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³⁾

이 글에서는 <운영전>을 대상으로 하여 성의 억압과 그에 대한 궁녀들의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그 문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텍스트로는 김동욱 교주본 <운영전>을 선택하기로 한다.⁴⁾

2) <운영전>에 대해서는 이본 연구, 작자와 저작 시기 검토, 작품 상호간의 영향 관계, 구조 분석, 비극성, 사회적 의미 등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법에 의해 심도있게 논의되어 왔으며, 연구사도 이미 몇 편 나와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性이라는 주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두 논문으로 미루고자 한다. 박기석(1990), 운영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완암 김진세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집문당 및 성현경(1993), 운영전, [고전소설연구], 황폐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총, 일지사.

3) 그런데 성의 억압을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선조의 성 억압 체계는 권력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김동욱 교주(1978), <운영전>, 보성문화사, 인용은 페이지 면수만 적기로 한다.

Ⅱ. <운영전>의 구조와 성 억압

1. 작품구조

<운영전>은 궁녀인 운영과 선비인 김진사가 애정을 나누다가 사회적·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결국에는 자살로 마감하는 내용의 비극적 소설이다.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애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와 제도라는 틀 속에서 애정을 방해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애정과 性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필수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성의 억압과 저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건의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선비 유영이 수성궁을 거닐다가 잠결에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 다음과 같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 (2) 안평대군이 수성궁에 운영 등 궁녀 10인을 두고 풍류의 세월을 보낸다.
- (3) 안평대군은 “시녀 중 만일 하나라도 궁문 밖을 나간즉 그 죄 마땅히 죽을 것이요, 밖 사람이 궁인의 이름을 알면 그 죄 또한 죽으리라”는 엄명을 내리다.
- (4) 선비인 김진사가 수성궁에 와서 안평대군과 시를 화답하다가 운영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연서를 주고 받는다.
- (5) 노복 특의 도움으로 김진사가 궁을 월장하여 운영과 밀애를 나눈다.
- (6) 안평대군이 운영의 행적을 의심하자 김진사와 운영이 서로 도망치려고 도모하지만, 특의 흉심으로 실패하고 대군의 의심을 산다.
- (7)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문초하여 운영을 별당에 가두자 운영이 자결한다.
- (8) 김진사가 운영의 제를 지낸 후 따라 죽는다.
- (9) 두 사람이 자신들의 사연을 전해 줄 것을 유영에게 부탁한다.
- (10) 유영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책자만 놓여 있음을 발견한다.

위의 서사 줄거리에서 (1)과 (9)~(10)은 외부액자로서 선비 유영이 운영과 김진사간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내용을 알게 되는 외부 액자이며, (2)~(8)이 운영과 김진사간에 얽힌 애정담으로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서의 속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액자소설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이 애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액자 구성을 취한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당시 금기시된 인물인 안평대군의 사적을 이야기해서라는 견해도 있지만,⁵⁾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서 언급되어서는 안될 性이라는 문제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도 궁녀라는 특수한 신분층을 대상으로 하여 다루었기 때문에 액자 형식이라는 틀을 빌어 왔다고 여겨진다. 즉 금지되고 금기시되는 대상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액자가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 구성을 취하였던 것이다.⁶⁾ 왜냐하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의사 표현에는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며, 대상에 대한 금지, 상황에 있어서의 관습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⁷⁾ 특히 조선시대처럼 폐쇄적인 신분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대상이나 배타적인 것이 적지 않았을 터인데, 이 경우 性이라는 담론도 당대 사회에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었을 것이다. 즉 성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보다 은밀하고 비공개적인 사적 차원에서 화제의 대상이었을 것이며, 더군다나 궁중의 일일 경우 더 심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운영전>의 작자는 유영이라는 서술자를 작품의 서두에 등장시키며 그것도 술에 취한 몽롱한 상태에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게 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들도록 꾸미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궁녀 신분인 운영이 외부인인 김진사와 서로 만나 정을 통하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발달되면서 심문당하는 기록인 초사를 통해 궁녀들과 대군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 및 성의 억압과 저항을 사실적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기존 사회의 가치관과 갈등관계에 있는 경우에 소설에서 제시된 내용과 작가 사이에 허구적인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작가의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⁸⁾ 이와 같은 액자 구성 중에서 내부 액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성의 억압과 저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박기석(1990), *운영전*, 앞의 책, 719면.

6) 이현홍(1996), [고전소설연구입문], 세종출판사, 262면.

7)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1993), [담론의 질서], 도서출판 새길, 16면.

8) 액자형식을 취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욕망의 상상적인 대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웅소설은 현실의 결핍된 욕망을 소설이라는 허구적인 세계에서 결핍된 상황을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강하다 할 수 있다. 윤경희(1995), 문학관의 대립으로 살펴본 *운영전* 해석, 서강어문 11집, 서강어문학회, 110면.

- ①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궁문밖 출입은 물론 외부인이 궁인의 이름이라도 알게 되면 그 죄값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엄명을 내린다.
- ② 선비인 김진사가 운영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연서를 주고 받으며 궁궐담을 넘나들며 밀애를 나눈다.
- ③ 김진사와 운영이 서로 도망치려고 도모하지만, 특의 흥심으로 실패하고 대군의 의심을 산다.
- ④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문초하는 과정에서 궁녀들이 성의 억압에 대한 항변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 ⑤ 안평대군이 운영을 별당에 가두자 운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①은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주거를 제한하고 행동 범위를 구속함으로써 외부인과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써 성을 억압하는 대목이다. 궁녀들에게 철저한 금기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억압의 상황에서 운영과 김진사는 서로 만나게 되고, ②와 같이 연서를 몰래 주고 받으며 심지어 궁궐담을 넘어서까지 서로 밀애를 나눈다. 이는 ①의 금기를 무너뜨리고서 사랑을 성취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이며 나아가 대군의 의지에 어긋되는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금기에 대한 이러한 저항은 ③에서 원조 역할을 해 왔던 특의 배반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 대군으로부터 그 과정을 심문받는 ④의 결과에 이른다. 이 심문 과정은 대군의 성 억압에 대한 궁녀들의 본격적인 항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물론 궁녀들의 언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당시의 제도나 풍속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발언은 놀라운 것이다. 결국 안평대군은 노여움을 거두지만 장본인인 운영은 ⑤와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궁녀들의 성에 대한 자각과 인식의 한 면모를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당시 제도에 대한 궁녀들의 강한 저항의지를 엿보게 되기도 한다. 즉 그 시대 궁녀들의 경우는 외간 남자는 물론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성에 대한 제한을 받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결국 현실에서는 거론될 수 없었던 것이 소설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으며, 더구나 액자라는 이중 장치를 취함으로써 해서 교묘하게 현실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았던가 한다.

2. 성 억압과 저항의 양상

(1) 성정 표출과 억압에 대한 저항

안평대군은 젊고 자색 있는 궁녀 중 10명을 뽑아 심궁에 거주하게 하여 소학으로 행실을 닦게 하고 경서로써 학문을 익히게 하며 시를 공부하게 한다. 여기서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요구한 것은 외부 사람과 접촉을 일체 삼가하면서 궁녀로서의 충절과 여성으로서의 정절을 지켜, 경서를 익혀 학문을 닦고 그러한 인격과 학문에 바탕을 둔 시를 써서 자신을 기쁘게 해 주는 일이다. 이는 궁녀들에게 충절과 절개를 강요하는 한편 자신의 울타리(수성궁)를 유지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다. 이러한 구속 속에서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부연시’를 짓게 하고, 운영의 작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시초가 엿보인다. 당시 운영을 제외한 궁녀들이 지은 작품은 안평대군의 의지대로 정절을 지킬 뜻을 표현했거나, 임금에 대한 정성을 표현하거나, 단순한 경물에 촉발되어 쓴 시인데 비하여 운영의 작품은 푸른 연기라는 경물에 의탁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었다.

望遠靑煙細	멀리 바라보매 푸른 연기가 가늘고 고옴이여,
佳人罷織紉	아름다운 사람이 비단짜기를 끝마쳤구나.
臨風獨惆悵	바람을 임하여 서서 홀로 서러워하니,
飛去落巫山	날아가 무산에 떨어졌도다. ⁹⁾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슬픔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생각이 무산에 떨어진다라는 표현에서 이성애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운영의 시에는 궁중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정욕 표출의 본능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운영의 시를 품평하는 과정에서 안평대군은 그 내용 중에 연모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 차리고, “홀로 운영의 글은 顯然히 招悵하여 사람 생각하는 뜻이 있으니, 아지못게라 생각하는 바의 자는 어떠한 사람이뇨? 마땅히 자세히 물을 것이로되 그 재조가 가히 아까운 고로 아직 그만두노라”¹⁰⁾ 하며

9) <운영전>, 331면.

10) <운영전>, 333면.

의심을 한다. 이에 운영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지만 대군이 “글은 본디 성정으로부터 남이라 가히 숨기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너는 다시 이르지 말라”¹¹⁾라고 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짓는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요구하는 시는 성정의 자유로움을 표출하기보다는 엄격한 금욕의 자제에서 담담히 우러나는 경지의 시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성삼문이 궁녀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곧 안평대군이 성삼문에게 궁녀들이 지은 시를 보여주고 품평하기를 요구하자 성삼문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前朝로부터 우금 육백여 년에 글로써 동국에 이름난 자가 몇 사람인 줄 알지 못하되, 모두 병이 많아 혹 호리고 맑지 못하거나, 혹 맑으나 부잡하여 모두 음률에 합지 못하고 성정을 잃은지라 마땅한 글을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 이 글을 보매 풍격이 청신하고 의사가 초월하여 조금도 진세 태도가 없으니 이는 필연 심궁 사람의 글이라. 외인으로 상접지 못하고, 다만 깊이 들어, 고인의 글만 보고 외어 마음에 자득함이라.¹²⁾

성삼문의 이 글은 당시 사대부들의 문학관을 보여 준 글로서 ‘풍격이 청신하고 의사가 초월하여 진세 태도가 없’는 것이 좋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운영의 시에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안평대군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이나, 성삼문이 청신한 것을 좋아하고 진세 태도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위와 같은 태도는 문학의 성을 자유로운 성정 표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성에 대한 억압의 태도와도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다. 이들의 시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은 맑고 참되며 속세로부터 초월하여 높은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참된 시, 좋은 시는 마음 속에 있는 人慾을 끊고 존심양성하여 성정의 바름에 도달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¹³⁾

결국 안평대군의 문학관은 시에서 성정의 바름을 드러내는, 곧 道를 표현하는 것이다. 중세의 載道論의 문학관에서 道는 보편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며 모든 구체적인 사물보다 선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11) <운영전>, 333면.

12) <운영전>, 339면.

13) 김홍규(1982), [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40면.

뒤음으로써 성정의 바름을 얻고 여기서 경물의 이치를 깨달아 시로 표현한다. 이러한 문학관은 理 중심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이 인간관계로 전이되면 인륜의 도덕적 덕목으로 충과 효, 정절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념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理의 특성상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심궁에서의 고립된 생활과 함께 경서는 물론 고인의 시를 익히게 하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⁴⁾

한편 문학에서 성정을 자유롭게 표출하고자 한 운영의 의지는 성정을 배제하고자 한 당시 선비들의 의식과의 마찰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며 나아가 앞으로 있게 될 대군과 운영 사이의 필연적인 갈등이라 할 것이다.

운영은 나이 13세에 주군이 부르시매 부모를 이별하고 형제를 멀리하여 궁문에 들어오게 된다. 궁궐에 들어 온 운영의 처지와 입장은 동료 궁녀들의 한탄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들 궁녀들은 “우리는 팔자 기박하여 적막심궁에 고독 단신이 세월의 오며 감을 알지 못하고 한금냉침이 차며 더움을 깨닫지 못하니, 세상만사가 부운 같은”¹⁵⁾ 처지에 있게 되며, “심궁에 갇혀 있어 농중에 든 새 같은지라”¹⁶⁾는 것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다. 운영 또한 “우리 등이 도 닷는 사람이 아니요, 또 尼僧이 아니건만, 이렇듯한 심궁에 갇히이니 짐짓 이른바 長信宮이로다.”¹⁷⁾와 같이 신세를 한탄한다. 이들 궁녀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깊고 깊은 궁중으로 들어와 닫혀진 생활을 하며 세월가는 줄을 모르는 채 지낸다. 이들은 하찮은 미물에도 모두 짝이 있으며 음양을 품수하여 서로 즐기지 않음이 없는데, 자신들만이 적막심궁에 갇혀 음양의 이치도 모르는 채 억압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자가 되어 임신양명치 못함을 한탄하고, 한갓 흉안박명의 몸이 되어 한 번 심궁을 단으매 마침내 고목과 같이 썩음을 원한할 따름이라. 인생이 한 번 죽은 후면 뉘 다시 알리오. 이러므로써 한이 심곡에 맺히고, 원이 흉역에

14) 윤경희, 앞의 글, 121-122면.

15) <운영전>, 363면.

16) <운영전>, 369-371면.

17) <운영전>, 365면.

며, 수를 놓다가도 버리고, 마음을 등화에 붙이며, 비단을 짜다가도 복을 던지고 틀에서 내리며, 나뭇잎을 찢어 버리고 옥잔을 꺾어 마음을 정치 못하고 저르기 시흥이 난죽 옷을 견고 산보하여 꽃도 따며, 풀도 꺾어 글을 외며, 시를 읊어 여취여광하여 정을 스스로 억제치 못하더니¹⁸⁾

이러한 처지에서 운영은 김진사를 만난다. 안평대군이 김진사를 맞이하여 시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김진사가 글씨를 쓸 때 붓 끝의 먹이 운영의 손목에 튀게 되어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서로 연모하게 된다. 그리하여 운영은 잠을 자나 능히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밥맛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며, 마음이 번거롭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며, 의대가 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결국 금차와 서신을 봉하여 김진사에게 전한다.

布衣革帶士	베옷 입고 가죽띠 띠 선비가
玉貌如神仙	옥 같은 얼굴이 신선이다.
每向簾間望	매양 발 사이로 여어보나,
何無月下緣	어찌하여 중매의 인연이 없는고
洗顏淚作水	낯을 씻으매 눈물로 물을 지었고
彈琴恨鳴絃	거문고를 타매 줄이 울음을 한하도다.
無限胸中怨	한 없는 흉중의 쌓인 원을,
攬頭獨訴天	머리를 들어 홀로 하늘께 사뢰리라 ¹⁹⁾

운영의 이 시는 김진사에 대한 그리움의 정과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원망으로 눈물 지으며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적 화자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낸 자연스런 감정의 발로이다. 앞의 안평대군이나 성삼문이 요구한 감정이 절제된 성정의 올바른 발현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러한 입장은 오히려 인간의 정을 본연지성으로 보는 천기론적 문학관의 사상적 배경과 맞닿아 있다. 허균은 “남녀의 정욕은 하늘이 내린 것이고 윤기와 분별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은 성인보다 한층 더 높으니 나는 하늘을 따르지 성인을 감히 따르지 않겠다.”²⁰⁾라는 발언을 통해 인간의 정을 강조하고 있다.

18) <운영전>, 385-387면.

19) <운영전>, 353-355면. 시 해석의 일부분은 문맥에 맞게 약간 고쳤음.

20) 男女情欲天也 倫紀分別 聖人之教也 天且高聖人一等 我則從天而不敢從聖人 其從誦其言 以為至論. (李植, 澤堂別集 卷15 雜篇, 示兒代筆, [한국문집총간] 88권, 521면.)

그리고 조선후기의 천기론적 문학관을 지닌 이옥은 “무릇 천지만물을 살피는 데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중대한 것이 없고, 사람을 보는 데에는 情보다 묘한 것이 없으며, 정을 살피는 데에는 남녀간의 정을 살핌보다도 진실한 것이 없다.”²¹⁾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의 시는 바로 이러한 정과 상통하는 것이다.

김진사 역시 운영의 서신을 받고 답신을 보낸다. 운영과 김진사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성의 자기 결정권과 주체적 행사를 추구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결과라 여겨진다. 김진사와 운영의 행위는 당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궁녀와 외부인과의 금지된 사랑을 과감히 성취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그리하여 동료 궁인들과 노복인 특의 도움으로 운영과 김진사는 담을 뛰어넘어 밀애를 나누게 된다. 여기서의 월장행위는 비합리적 몰인간적인 제도를 만든 전제주의 왕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²²⁾ 이들은 매번 담을 넘어 밀애를 나누기 시작하며 “원앙의 즐김과 운우의 낙이 여산약해하여 요대의 꿈”²³⁾을 누리게 된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어두우면 들어오고 밝으면 나가 아니 오는 날이 없으며, 정이 깊고 의가 巧密하여 그칠 줄을 알지 못하고 만다”²⁴⁾ 이러한 행위는 억압되고 금기시된 궁녀 사회에서 자유로운 性的 활동이며 나아가서는 대군의 성 억압에 대한 운영의 저항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성에 대한 성취도 결국 대군의 의심을 받아 문초를 당하게 되며, 그러한 와중에서 운영은 자결하고 만다. 여기서 운영의 죽음은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체절에 대한 죄책감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써 대군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항의식인 것이다. <운영전>의 전반에 흐르는 남녀정욕에 대한 옹호와, 운영과 김진사의 과거사에 대한 회고적 정서가 자신들의 사랑이 비극적 결말을 맺은 것에 대한 원한임을 볼 때 운영의 죽음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옹호하고 대군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21) 이옥, 俚諺引, 二難, [藝林雜佩], 天地萬物之觀 莫大乎觀於人 人之觀 莫妙乎情 情之觀 莫真乎觀於男女之情 (김홍규, 앞의 책, 187면에서 재인용.)

22) 실제로 조선왕조사회에서는 월장행위에 의한 궁녀들의 도망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통치자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여 그 주모자를 가려 엄벌에 처한 사건이 세종 때에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장에 후술될 것이다.

23) <운영전>, 399면.

24) <운영전>, 399면.

할 듯하다. 비록 그것이 봉건적인 신분질서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자각적으로 평등의식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남녀정욕이 귀천없이 한결같다는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은 안평대군으로 대표되는 사대부의 억압적 성윤리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운영이 성을 긍정하고 애정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대군이 그것을 억압하고 처벌하려는 의지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운영의 경우 이 둘을 모두 긍정해야 되겠는데, 그 둘이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데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며, 양자간의 갈등은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운영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을 추구하게 되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삶의 의지에 따른 성의 긍정과 봉건적 유교 이데올로기에 따른 대군의 의지 두 형태를 모두 긍정하는 삶이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어느 한 부분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비극을 발생하게 된 요인이었던 것이다.

(2) 제도와 관습의 억압에 대한 저항

안평대군의 궁녀 공초 과정에서는 궁녀들의 처지와 저항의 형태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억압당하는 성에 대해서 저항하는 궁녀들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궁녀들은 7, 8세의 어린 나이에 깊고 깊은 궁중으로 들어와 단한 생활을 하며 세월가는 줄 모르는 채 아주 외롭게 지낸다. “첩이 치발이 채 자라지 못하여서 궁중에 들어오매”²⁵⁾라는 옥녀의 진술 대목에서는 이들이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고, 비취의 “첩 등이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오직 文墨과 絃歌를 일삼을 따름이더니”²⁶⁾라는 대목 및 “오래 深宮에 갇히어 길이 외로운 그림자를 위로하여 다만 대하는 바가 등불이요, 일하는 바가 歌琴이라”²⁷⁾는 대목에서는 궁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문고 타고 노래부르는 일이 고작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春風桃李花開時와 秋夜長兮 긴긴 밤에 羅幃는 적막하고 繡幕은 비었는데 靑燈 寒枕에 꿈 이루기 어려운”²⁸⁾ 처지에 있지만 그들

25) <운영전>, 423면.

26) <운영전>, 423면.

27) <운영전>, 391면.

28) <운영전>, 341면.

도 인간이기에 여성으로서의 소망인 시집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소망은 다음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미물에도 어린제비도 쌍지어 날고, 깃들이는 새도 둘이 앉아 즐며, 풀에도 舍歡草가 있고, 남에도 連理枝가 있는지라 무지한 초목과 至微한 금수라도 또한 음양을 품수하여 서로 즐기지 아니함이 없는지라 우리 등 심인은 홀로 무슨 죄로 적막심궁에 일신을 길이 잠가, 春花秋月에 孤燈을 짝하여 혼을 사르고 每當佳辰에 잔월을 대하여 넋을 놀래니, 헛되이 청춘의 나이를 던지고, 공연히 黃壤의 한을 끼칠지라. 賦命의 박함이 어찌 그 이렇듯이 심하랴. 인생이 한 번 늙으매 다시 젊든 못하리니 그대는 다시 생각하여 보라. 어찌 슬프지 아니리오.²⁹⁾

인용문에서 ‘쌍지어 나는 제비’, ‘짝 있는 새’, ‘합환초’, ‘연리지’ 등 하찮은 미물에도 모두 짝이 있으며, 음양을 품수하여 서로 즐기지 않음이 없는데 궁녀인 자신들만이 적막심궁에 갇혀 음양의 이치도 모르며 지내는 처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억압된 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들 궁녀들의 억압된 생활은 바로 성을 제대로 발산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이며 결국 성에 대한 억압인 동시에 자유로움을 억압당한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서 궁녀들은 운영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억압받고 있었던 성에 대해서 눈뜸과 동시에 인간적인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리하여 평소 억눌려 왔던 성에 대한 생각을 과감히 표출한다.

(가) 남녀 情欲은 음양으로 품수함이라 귀천 없이 사람마다 있거늘, 한 번 심궁을 닫으매 형용이 孤單하고 그림자가 외로와 꽃을 보면 눈물이 가리우고, 달을 대하면 혼을 사르는지라. 매화 가지에 앉은 피꼬리는 혼자 날지 아니하고 주렴 위에 깃들은 제비는 시러곰 쌍지어 노래 부르는지라 한 번 궁장을 넘은즉 가히 인간의 낙을 알 것이어늘, 차마 하지 못하는 바의 사람은 어찌 그 힘이 능치 못하며 마음이 부족할 바이리이꼬. 오직 주군의 恩愛를 차마 저버리지 못함이요, 또한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함이라. 굳이 마음을 지키어 써 궁중에서 말라 죽을 계교뿐이어늘 이제 범한 바 죄 없이 죽을 땅에 두고자 하시니 첩등이 황천지하에 가나 능히 瞑目지 못하리로소이다.³⁰⁾

29) <운영전>, 371면.

30) <운영전>, 423면.

(나) 금일지사 죄가 불측한 데 있는지라 중심 소회를 어찌 차마 은휘하리 이코. 첩등이 다 여항에 生長한 계집이다. 아비 대순 아니요, 어미 이비가 아닌즉, 男女情慾이 어찌 없사오리이코. 주 목왕은 천자로되 매양 요대의 즐김을 생각하였고, 향우는 영웅이로되 장중에서 눈물 흘림을 금치 못한지라 주군이 어찌 운영으로 하여금 홀로 雲雨의 情이 없다 하시나니이코.³¹⁾

(가)는 은섬의 초사 내용으로 ‘남녀 정욕은 음양으로 품수’받은 것으로 귀천 없이 사람마다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들은 심궁 속에 있어 ‘형용이 고단하고 그림자가 외로와 꽃을 보면 눈물이 가리우고, 달을 대하면 혼을 사르는’ 처지에 있게 된다. 궁궐 바깥에서는 자유로운 성의 표출을 통해 인간의 낙을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오로지 대군의 은혜와 위엄을 두려워 해서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섬의 이 초사는 궁녀도 인간으로서 정욕을 지니고 있지만 대군의 억압과 금지에 의해 눌러 있게 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억압된 성이 운영의 사건을 통해서 안평대군에게 직접적으로 아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당대의 현실에서는 어렵지마는 <운영전>이라는 작품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이 지닌 한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에서도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이다. 궁녀도 인간이므로 ‘남녀지간의 정욕’이 당연히 있으며, ‘운우지정’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 정욕을 대군이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출되지 않았을 따름이지 사실은 궁녀들 모두가 바라던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란은 안평대군에게 운영을 용서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안평대군이라는 권력의 성적 억압에 대항하여 궁녀들이 평소에 지닌 생각을 펼쳐 보이는 과정을 통해 <운영전>의 성 억압과 저항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앞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운영의 경우 삶의 의지에 따른 성의 긍정과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대군의 의지 두 형태를 모두 긍정하는 삶이 바람직한 것이 없겠지만 어느 한 부분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비극을 발생하게 된 요인이었다. 이러한 운영의 비극은 다른 궁녀들에게도 물론 해당된다. 오히려 운영은 자기가 바라던 의지대로 김진사와의 사랑을 어느 정도 성취했기 때문에 다른 궁녀에 비해서는 행복한 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31) <운영전>, 425면.

차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궁녀들은 이러한 생각은 엄두에도 못낼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궁녀들은 거의가 주체적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궁궐 속에 들어와 이미 결정된 숙명적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한 번 궁궐에 들어 온 궁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생을 궁궐 속에서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임금의 은총을 입은 소수의 궁녀를 제외한 대부분의 궁녀들의 일생은 대체로 임금에 대한 애모와 기다림,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마저도 좌절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느끼게 되는 비극적인 정조로 점철되지 않을 수 없다.³²⁾ 이러한 궁녀들의 처지를 몇 편의 궁사³³⁾를 통해 살펴보면 그들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他繁直守小廚房 세숫대야 받들어라 작은 주방 지키면서
跪向瑤臺進酒漿 요지 향해 무릎 꿇고 주장을 올리누나
逢着內家猶不避 궁인을 만나 뵈도 오히려 피할세라
一生曾未識君王 일생 동안 한 번도 군왕을 못 뵈는걸³⁴⁾

마지막 행의 '일생 동안 한 번도 군왕을 못 뵈는' 그들의 처지는 바로 궁녀들의 비극적 생활 그 자체를 암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설령 군왕의 총애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왕이 버리면 다시 쓸쓸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라 할 것이다.

謹在西宮閉九關 서궁으로 밀려난 뒤 구관을 닫아 건 채
三年猶未覩龍顏 삼년이 지났어도 용안을 못뵈었네
今朝始賜黃柑子 오늘 아침 비로소 황감을 하사받고
却對來人理翠鬢 보낸 사람 마주 대해 검은 머리 매만지네³⁵⁾

32) 김용숙(1990), [한국여사(俗史)], 민음사, 212면 및 김용숙(1987),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일지사, 제1장 참조.

33) 궁사는 궁녀와 군왕과 이들의 궁중생활, 곧 궁녀애환과 군후지덕과 궁중생활을 다룬 시라고 정의된다. 궁사 가운데 궁중에서 살면서 궁녀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희노애락을 시적 구도 속에 섬세하게 포착한 것이 궁녀애환의 詞들이다. (강미정(1996), 한국 궁사의 전개양상 연구, 전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6면.)

34) 허균, 宮詞 83째수. 국역 [성소부부고] I, 고전국역총서, (주)민문고, 1967, 193면.

35) 허균, 궁사 89째수, 위의 책, 193-194면.

이 시는 임금의 사랑을 받던 궁녀가 버림을 당한 후 3년 동안 임금의 얼굴을 뵈지도 못하는 쓸쓸한 유폐의 생활을 지내다가, 어느날 문득 감귤을 하사받고 반가운 마음에 찾아 온 궁녀를 대하여 머리를 매만진다는 내용을 그렸다. 3년 동안의 쓸쓸한 유폐생활을 하면서도 임금이 다시 찾아주길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는 궁녀의 애뜻한 처지를 느낄 수 있다. 임금의 사랑을 받는 궁녀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 한하므로 일반 궁녀들은 대체로 수심에 찬 기다림 속에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예법사회 특히 궁중이라는 사회 속에서 인간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궁녀들끼리의 동성연애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바 다음의 시는 바로 이러한 처절한 사정을 읊은 것이다.

初年抱被直春堂 初년에는 이불 안고 춘당에 직했는데
 因病休閒在曲房 병으로 휴한하여 곡방에 있게 됐네
 強就小娥來對食 굳이 소아를 맞아 데려다 대식³⁶⁾하더
 手開箱篋乞羅裳 의장을 손수 열고 나상을 내주누나³⁷⁾

사실 궁녀들은 오로지 왕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신분적 처지에 있는 궁녀들은 그만큼 한을 많이 가졌던 존재이기에 도망을 가거나³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며,³⁹⁾ 때로는 궁인과 더불어 간통하여 궁녀가 죽거나⁴⁰⁾ 관리들이 처벌되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다.⁴¹⁾ 그리하여 [경국대전]에는 '조정관리로서 대궐에서 내보낸 시녀나 무수리에게 장가든 자는 장청 100대에 처한다'⁴²⁾는 금지 조항이 마련된다. 한편 국가에 재난이 발생

36) 對食은 일종의 동성연애를 의미한다.

37) 허균, 궁사 84책수, 위의 책, 193면.

38) 세종 26년에 수강궁의 궁녀들이 도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거기에 연류된 시녀와 방자 등을 의금부에 보내어 조사하게 한 사건이 왕조실록에 보인다.(세종 26년 甲子 十月, [조선왕조실록]4권 세종실록(三), 국사편찬위원회, 589면. 이하 인용에서는 [실록]의 권수와 그 면수만 적기로 한다.)

39) 영조 41년에 우물에 몸을 던져 죽은 궁인에게 홀전을 배풀고 궁녀 30명을 풀어 주었다.

40) 현종 8년에 간통한 궁녀 귀열을 참수한 사례가 있다.

41)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42) [경국대전] 권5, 형전, 禁制. 한편 성종은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대전(大典)》의 ‘조관(朝官)은 내어 보낸 궁녀(宮女)와 수사(水賜)에 장가들지 못한

할 경우 이들의 원한이라 생각하여 궁녀들을 출궁시키거나⁴³⁾ 궁녀들의 집 왕래를 허락하고자 하는 사례가 왕조실록에 보이기도 한다.⁴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이 작품에 등장한 다른 궁녀들이 대군에 항거하며 보여준 일련의 과정들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세의 성 억압은 권력의 억압이라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을 표출하는 것은 죄의식의 소산이고 그것을 덮어두고 발설하기를 꺼리는 것이 덕목이라는 금욕주의적 인식이 마음 속에 자리잡을 때는 ‘복종의 미덕’이 생겨나고, 아울러 ‘인내심의 함양’이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소수의 지배계층은 이성우월주의에 바탕한 ‘엘리트 독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⁴⁵⁾ <운영전>의 경우도 궁녀들이 대군의 명령, 즉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궁문밖 출입을 자제하는 것은 바로 금욕주의에 바탕을 둔 성의 억압상태인 것이다. 여기에는 바로 인내심이 요구되며 복종의 미덕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에 저항하며 성을 직접 표출하는 운영의 행동이나 초사과정에서 보인 궁녀들의 반응은 성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적인 의지이자 나아가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운영과 김진사간에 얽힌 비극적 사연, 나아가 궁중 여인들의 통제되고 억압된 삶들은 결국 조선조의 봉건적 가부장제도의 성 이데올로기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朝官勿娶放出宮女水賜] 는 조문(條文)에 ‘종친 및[宗親及]’ 이라는 세 글자를 보태어 기록하라.” 하였다. (성종 18년 丁未 正月, [실록] 11권 174면.)

43) 태종 14년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제 가뭄이 심하니, 이것이 궁녀들의 원한의 소치(所致)인가 합니다. 원컨대, 궁녀로 하여금 윤번(輪番)으로 입시(入侍)하게 하여 남녀의 정(情)을 다하게 하면 거의 화기(和氣)에 이르러서, 가뭄의 재해(災害)를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종은 큰 가뭄을 당하여 궁녀들이 내전(內殿)에 살아서 원한이 있을까 하여 궁중(宮中)의 시녀(侍女) 10여 명을 내보내고, 또 무수리[水賜] 여자들의 남편이 있고 없음을 물어서 10일씩 바꾸어 입번(立番)하게 하였다. (태종 14년 甲午 六月, [실록] 2권 20-21면.)

44) 上憂旱 問元肅等曰 唐太宗 遇災出宮女 以解陰陸 我父王 亦遇旱災 許令房子往來其家 至今行之 吾亦欲許房子往來其家 (세종 1년 己亥 五月 [실록] 2권 318면.) 숙종조에도 가뭄 때문에 궁녀를 내보낸 기사가 보인다. 放出宮女二十五人 以旱乾也 (숙종 11년 乙丑 二月, [실록] 39권 30면.)

45) 마광수(1996), 그래도 '사라'는 즐겁다, 신동아, 1996년 7월호, 328-329면.

봉건적 가부장제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며 그것이 사회 이데올로기로 굳혀져 조선조의 보편적인 생활체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조선 시대의 여성들은 조선 왕조의 정치구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주자학이 사회 편성원리로 받아들여지고, 가치체계로서 이념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性的, 경제적 지배의 강화를 겪었다.⁴⁶⁾ 이처럼 <운영전>에서 초래된 궁녀들의 비극은 대군이 궁녀들을 통제한 결과 발생한 일이지만 결국 사회 제도의 구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남성에 의한 여성의 통제와 억압, 궁녀제도라는 특수한 신분제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이다.

이상에서 운영과 김진사간에 있었던 애정의 성취와 좌절을 통해 성이 어떻게 통제되고 발산되었던 것인가를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첫째는 작시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성정 표출을 제한당하며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억압당하는 모습에서 성의 억압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이에 맞서 운영이 김진사와 애정을 추구하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운영 개인의 性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는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궁녀들의 성의 억압된 모습과 좌절 및 그 저항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들의 性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Ⅲ. 성 억압과 저항의 문학적 의미

궁녀들은 주체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삶의 대부분을 궁궐과 인연을 맺고 살았기에 거기에는 각종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였다.⁴⁷⁾ <운영전>에서 다루어졌던 성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비록 그것이 소설이라는 허구적 장르에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짙은 사건이다.

46) 조옥라(1988),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연구]1, 종교와 가부장제, 청하, 138면.

47)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궁녀와 관련된 기사가 수없이 나온다. 이를 조선왕조실록 CD-ROM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운영전>에서 다루어졌던 性 문제는 '운영'이라는 개인의 차원을 이미 넘어서서 궁녀 모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평대군의 궁녀 취조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그들 모두의 性的 인식에 대한 발언의 내용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운영전>의 문학적 의미를 사회제도와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궁중에서 벗어났던 궁녀들의 실제 삶의 일부 사례를 통해서 <운영전>과 비교해 보고 그것의 후대 문학에 변용된 실상을 통해서 문학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궁녀들의 삶은 부정과 긍정의 두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부정의 사례는 간통, 도망, 자살이라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가) 《 현개 017 08/05/20(계해) / 간통한 궁녀 귀열을 참수하다 》

궁녀 귀열(貴烈)이 복부되었다. 이에 앞서 귀열이 자전의 시녀로서 자기 형부인 서리(書吏) 이흥운(李興允)과 몰래 간통하여 임신했는데, 일이 발각되자 상이 내옥(內獄)에 가두라고 명했다. 이때 이르러 옥중에서 아들을 낳고 나자 상이 형조에 회부하고는 법률을 적용하게 했다. 형조가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고 아뢰자, 상이 등급을 높여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해조가 법을 인용하여 간쟁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죽시 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정원도 역시, 법이 한번 잘못 시행되면 뒷 폐단이 적지 않으니 해조가 조율하여 아뢴 대로 행하라고 청했는데, 상이 또 듣지 않아 드디어 참수했다. 그녀의 부모 역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울러 형신을 받고 정배되었다. 흥운은 도망했는데, 수색했으나 잡지 못했다.⁴⁸⁾

(나) 《 세종 106 26/10/14(기미) / 수강궁의 궁녀 도망 사건에 연류된 시녀와 방자 등을 의금부에 보내다 》

수강궁(壽康宮)의 시녀와 방자(房子) 등 85인을 의금부에 내렸다. 부마(駙馬) 권공(權恭)에게 시집간 용주(翁主)는 태종 궁인(宮人)의 소생인데, 용주가 몸종 고미(古未)를 데리고 수강궁에 들어갔더니, 고미가 담을 넘어서 달아났는지라 경종과 외방으로 널리 수색하여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스리는데, 이 초사에 걸려든 자가 무려 백여 명이 되는 것을 경복궁(景福宮) 밀실(密室)에 가두고서, 진양 대군 이유(李=)·광평 대군 이여(李瑤)·금성 대군 이유(李瑜)와 좌부승지 황수신(黃守身)을 명하여 함께 문초하게 하여, 죄 없는 자는 놓아 보내고 죄 있는 자를 의금부에 내리었는데, 몇 백 번이나 매

48) 顯宗改修實錄 8년 丁未 五月, [조선왕조실록] CD-ROM(1995), Seoul Systems. 원문은 [실록] 37권 567면 참조. 이하 궁녀와 관계된 왕조실록의 기사는 CD-ROM 소개 번역을 수록하고, 원문 출처만 밝히도록 하겠다.

를 때려도 승복(承服)하지 않고 또 압슬형(壓膝刑)까지 하였다. 대개 임금의 생각에는 궁인이 혹 담을 넘어 외인과 사통하지나 않았나 하였기 때문에 그 옥사를 끝까지 다스리게 하였으나 겨울에서 봄까지 가도 마침내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다.⁴⁹⁾

(다) 《 영조 106 41/08/08(신해) / 우물에 몸을 던져 죽은 궁인에게 홀전을 베풀고 궁녀 30명을 풀어 주다 》

당시 궁인으로서 조급하고 사나운 자가 하나 있었는데, 우물에 몸을 던져 죽으니, 임금이 그를 심히 측은히 여겨 홀전(恤典)을 베풀도록 명하고, 드디어 궁녀 30인을 풀어 주고 하교하기를, “당 태종은 궁녀를 풀어준 것이 3천 명인데, 나는 30명이 된다. 지난 해에 자수궁(慈壽宮)을 헐고 그 재목으로 비천당(丕闡堂)을 세웠으니, 열조(列朝)의 성덕(盛德)을 본받을 만하다.” 하고, 이어 궁녀로서 그 친족들을 데리고 궁중에 유양(留養)하는 자는 모두 직발하여 쫓아내어 금중(禁中)을 깨끗이 하도록 명하였다.⁵⁰⁾

(가)는 궁녀가 외부인과 간통하여 조정에서 문제시된 사례이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 왕조실록의 기사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사례는 궁녀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도 있지만, 대체로 궁녀의 신분보다 높은 궁내의 관리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사례는 [경국대전]에 마련된 외부인이 궁녀를 첩으로 삼지 못하게 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인은 벼슬이 강등되거나 귀양을 가거나 또는 죽음의 결과에 이른다. 궁녀들의 간통사례는 <운영전>에서의 운영과 김진사와의 결연에 다름 아니다.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외부인과 접촉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시 제도로 정해진 사실이며, 이를 어기고 두 사람이 서로 애정을 나누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은 간통사례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궁녀의 도망 사건이다. 세종 때 '고미'가 담을 넘어 도망하자 무려 100여명이 넘는 자가 초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초사를 벌이게 된 이유가 '궁인이 담을 넘어 외인과 사통하지는 않았나'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 궁녀가 담을 넘어 도망갔는지에 대해서는 그 실정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의 외부인과 사통을 하지는 않았나라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운영전>에서 발생한 궁녀들의 성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근거를 마

49) [실록] 4권 589면.

50) [실록] 44권 204면.

련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된다. <운영전>에서 김진사가 궁궐담을 넘어와 운영과 운우지정을 맺고 그러기를 계속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나)의 이 사례에서는 반대로 궁녀가 담을 넘어 도망했다는 사실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궁궐의 담'이라는 것은 결국 질서와 법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때, 그것을 넘어 들어가고 넘어 나갔다는 것은 결국 규범과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자유스러운 애정을 추구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는 궁녀가 자살한 사례이다. 앞서 <운영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궁녀들의 생활과정을 언급했지만 그들의 삶은 매우 열악한 것이었기에 이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현실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짙은 것이다. 궁녀의 자살과 관련지어 조정에서는 가뭄이 들거나 재해가 발생할 때 그 이유를 궁녀들의 원한이라 생각하여 궁녀들을 방출한 사례들도 더러 보인다.

이상에서 언급한 예들은 모두가 현실의 억압에 대해 궁녀들이 보여 준 부정적 사례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밖에도 여러 예들이 많이 있지만 <운영전>을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적기에 생략하였다. 다음은 궁녀가 현실의 질서에 순응하고 지배이데올로기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예이다.

(라) 《정조 033 15/07/16(기축) / 궁녀 이씨에게 수칙이란 작위와 정렬이란 칭호를 내리다》

궁녀 이씨(李氏)에게 수칙(守則)이란 작위와 정렬(貞烈)이란 칭호를 내리고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수칙이씨지가(守則李氏之家)'라는 편액을 달게 하였다. 이 당시 도성 서문(西門) 밖에 흐트러진 머리에 더러운 얼굴로 문밖을 나가지 않고 한 노파에게 의지해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노파는 옛날 궁인이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면서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경연관 가운데 상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상이 궁인을 보내 그를 찾아보게 하였는데, 노파가 그 찾아온 뜻을 짐작하고 스스로 진술하기를, "저 방안에 있는 여인은 내 이질(姪姪)이다. 나는 일찍 과부가 되어 궁중에 들어가 일을 했는데, 조카도 그때 나이 10여 세에 역시 나를 따라 궁궐에 들어가 경진년에 경모궁(景慕宮)의 칩소를 모셨고 그뒤 얼마 안 되어 나와 조카는 궁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다. 소천어동(小川魚洞)에서 이리로 이사온 것도 십여 년이 되었다. 조카는 임오년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폐인이 되어 세수도 하지 않고 벗질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불로 몸을 감싸고 방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해도 보지 않으며 심지어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문밖에 나간 일도 없고, 개 10여 마리를 길러 도둑을

막았다. 이웃집에 불이나 불길이 집으로 번졌으나 그래도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웃사람들이 감동하고 기특하게 여겨 다투어 불을 꺼서 죽지 않았다. 지금 나이 45세인데 머리가 이미 백발이 다 되었다. 조카와 내가 내력을 밝히지 않아서 사람들은 나를 조카의 어미로 의심할 뿐 감히 말하지 못하니, 이는 내 죄이다.” 하였다. 궁인이 그 얼굴을 보자고 청하자 노파가 말하기를, “명을 받고 다시 오면 보여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였다. 궁인이 돌아와 그 실상을 아뢰니, 상이 대신·예조·당상·한성부윤 등을 불러 만나보고 묻기를, “나는 그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싶는데 예법상 과연 어떻겠는가?” 하니,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는 뛰어난 행실입니다. 그 집과 마을에 정문을 세우는 것을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 하고, 예조 참판 이홍재(李洪載)·참의 서매수(徐邁修), 한성부 좌윤 홍명호(洪明浩)·우윤 이정운(李鼎運) 등은 채제공의 말처럼 특별히 정문을 세우자고 요청하였다. <중략> 드디어 월암(月巖)의 오두막집 앞에도 문을 만들고 ‘수칙이씨지가(守則李氏之家)’라는 편액을 달도록 명하였다. 이어 전관(銓官)에게 명하여 정청(政廳)을 열어 작위를 봉하되 단망으로 추천하고 그 품계는 종2품에 해당하도록 하였다. 또 호조의 당상관과 한성부 윤에게 명하여 묘소 편액을 다는 일을 감독하게 하고, 쌀과 비단과 돈을 넉넉히 주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얼마 후에 또 소천어동(小川魚洞)에 집을 사주고 문액(門額)을 옮겨 세우게 하였다.⁵¹⁾

이 사례는 10여세에 궁중에 들어와서 궁녀 생활을 한 이씨가 출궁한 뒤 30여년 동안이나 외부와는 일체의 접촉을 끊고 지내다가 궁궐에 이 사실이 알려져 ‘守則’이란 작위와 정렬이란 칭호를 받게 된 내용이다. 통치자의 시각에 긍정적으로 비치는 이 같은 사례가 왕조실록에서 극히 일부만 발견되고 있음에 반해 부정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만큼 궁녀들의 생활이 고통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임을 말해준다.

통치자의 시각으로 볼 때 <운영전>은 질서를 훼손시켜 왕권을 업신여기게 된 사례에 속한다. 통치자들이 성의 표출을 제한하고 통제한 것은 질서를 강조하고 궁녀들을 자신의 통치하에 묶어 두고자 함이다. 성을 통제하고 억압한 것은 결국 봉건적 가부장제에서 발생한 성 이데올로기의 한 현상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주체적인 것이어야 되는 인간의 성이 사회적 불평등과 더불어 억압되고 부자유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어 왔기 때문에 성에 대한 억압과 금기는 본래적 정치가 아니라 사회차별이나 불평등의 체제 속에 생겨난 것이

51) [실록] 46권 232면.

다.⁵²⁾ 그러면 조선조 위정자들에 의해 마련된 성의 통제 및 부녀자들의 제한된 삶이 문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조의 위정자들은 유교적 여성관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태조 원년에는 양반부녀자들의 왕래 및 접촉을 제한하며, 태종 때에는 풍기 문란을 근거로 사찰에 왕래하는 것을 금하며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게 하였다. 또한 양반의 正妻로 三嫁한 여자는 忸女案에 기록하게 하였으며, 성종 때에는 개가를 금지하여 ‘再嫁女子孫禁錮’의 법령이 [경국대전]에 문서화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삼강행실도]와 같은 윤리서를 제작 보급하여 충신·효자·열녀·절부 등을 장려 표창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녀의 장려와 표창은 국가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통제라는 기제가 함께 작용하여 ‘不更二夫’라는 법적·제도적 관습에서 마련되어 이루어진 결과이다. 조선 시대의 여성에 대한 성의 이데올로기적 통제 기제는 삼종지도, 칠거지악과 같은 부덕으로 나타나 유교적 생활 규범과 내외 관습으로 구체화된 여성 지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남녀 구별은 권력이 집중화되고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사회가 조직화됨에 따라 위계 서열적인 남존여비의 이념으로 굳어진다. 딸이 재가할 경우 아버지의 관직을 파직하고⁵³⁾ 어머니가 再嫁하면 아들의 현관제수를 금함으로써 양반층에서 여성의 再嫁 금지를 정착시켰다. 양인이나 노비 등 하층의 경우는 정절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문을 세워주거나 역을 면해주는 등 포상을 시행하였다.⁵⁴⁾

특히 여성의 재가 문제를 아들의 벼슬길에 묶음으로써 ‘아들을 위해 정절을 지키는 모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고 혼자 된 여성의 생계를 아들에게

52) 김홍식(1996), 복로된 성과 은폐된 제도, [한국현대문학의 성과 매춘 연구], 태학사, 310면.

53) 어숙권의 [패관잡기]에 보면, ‘嘉靖 초년에 朝官으로 鄭哥 성을 가진 자가 그 딸이 일찍 과부 된 것을 불쌍히 여기어 다른 사람에게 개가를 시켰더니 조정에서 풍속을 무너뜨렸다 하여 영영 관직에 서용하지 않았다.’(嘉靖初年間有朝官姓鄭者 聞其女早寡 改適他人 朝廷以爲敗壞風俗 永不敘職)라는 기록이 있다. (국역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71, 528면.) 이는 바로 딸의 재가를 아버지의 관직과 연계시킨 성 억압의 사례라 할 것이다.

54) 조은(1997), 모성·성·신분제 -[조선왕조실록] ‘재가 금지’ 담론의 재조명, [사회와 역사] 1997년 봄호, 문학과 지성사, 134면 및 박주(1990),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220-228면.

중속시키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연암의 <열녀함양박씨전>에서 과부가 정욕을 참으면서 수절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벼슬길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재가녀자손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성은 완벽하게 아들의 벼슬길을 보전해야 하는 모성에 중속된 것으로 보인다.⁵⁵⁾ 이와 같은 점은 茶山에 의해서도 지적된다.

남편이 죽자 아내가 따라 죽은 경우 이를 烈婦라고 하면서 마을에 旌表하고 戶役을 면제해주는가 하면 아들이나 손자들의 繇役까지도 감면하여 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열부가 아니라 소견이 좁은 여자인데 有司가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⁵⁶⁾

茶山은 남편이 죽자 맹목적으로 뒤따라 죽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다산은 義에 합당한 자살이 아니면 그것은 곧 천하의 흉한 일이라며 맹목적으로 남편을 따라 죽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옥도 <守則傳>이나 <生烈婦傳>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조선조 사회의 단면이지만 그 시대 현실을 보편적으로 드러내주는 가치관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즉 혈연과 신분제와의 결합으로 나타난 정절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회 현상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리하여 몰락 양반층에서는 열녀가 난다는 것이 영락한 가문을 일으키는 길이 되기도 하였고, 양민층에서는 요역을 면제받는 혜택을, 천민층에서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⁵⁷⁾ 이로써

55) [경국대전] 권3, 禮典. “改嫁女의 자손은 勿敍顯官한다.”는 조목은 여성의 성을 통치차원에서 억압한 사례라 여겨진다. 성종 또한 “이제부터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土版에 나란히 하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성종 8년 7월 18일.) 임금이 말하기를, “풍속의 교화는 중요한 일인데 어찌 재가를 허용하겠는가? 재가하고 싶으면 마땅히 스스로 재가할 것이다. 죄는 제 몸에도 더할 수 없는데, 어찌 자손을 돌보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열녀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결단코 재가를 허락할 수는 없다.”하였다.(성종 12년 10월 25일) 이러한 모습은 각종 문헌에 발견된다.

56) 夫卒 妻從而死謂之烈 爲之諱其槩丹其榜 復其戶 錫其子若孫繇役者 何也 曰匪烈也 隘也 是有司者不察耳. ([茶山詩文集] 권11, <烈婦論>, 국역 다산시문집 5권, 솔출판사, 1996, 151면.)

57) 박주(1990), 앞의 책, 220-221면.

열녀의 행태는 더욱 과격해지고 남편이 죽으면 자살을 하거나 외방 남자에게 손을 잡혔다고 투신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여성으로 하여금 살신케 하는 징절 이데올로기는 한편 여성 억압의 극단적인 지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였음을 일러준다. 아들을 낳으면 충신, 딸을 낳으면 열녀라는 속어에서 여성이 열녀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칭송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운영전>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비록 궁중과 궁녀로 되어 있지만 그들이 가진 삶의 의지는 아주 보편적이고 그들을 억압했던 유교적 생활 환경 또한 조선 시대로서는 지극히 보편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훌륭한 작품적 진실과 문학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결국 <운영전>에 나타난 성의 억압과 그 저항은 봉건적인 가부장제도하에서 비롯된 성 이데올로기의 한 방식으로서 권력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인간성을 지키고 스스로의 의지로 최소한의 삶이나마 꾸려보려는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의지마저도 당시의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못했기에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운영전>은 당대의 성 억압적 현실의 한 극단적 모습과 그에 대한 저항적 삶의 일단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마무리

<운영전>은性を 현실감 있게 다룸으로써 그만큼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작품이 생성된 연대를 17세기 중반으로 볼 경우 그 시대에 성 문제를 이만큼 비중있게 다룬 것은 우리 문학사에서 이룬 뛰어난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작품의 구조와 성 억압의 양상 및 저항을 통해 <운영전>이 문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를 살펴 보았다. 앞서 논의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이 작품은 액자 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해명하는 것이 성 억압과 저항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기에 작품의 구조 분석을 먼저 해 보았다.

조선조 사회처럼 배타적이고 성에 대한 담론이 금기시된 사회에서 더구나 언급되어서는 안될 궁녀들의 성에 대한 문제를 소설로 다루었기 때문에 액자라는 이중 장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을 이용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회적으로 性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성 억압은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외부인과의 접촉 및 교류를 금하는 대목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궁녀들에게 부연시를 짓게 하고 그것을 품평하는 과정에서 애성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나 개인의 성정이 시에 표현된 것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 억압에 대한 궁녀들의 저항은 운영 개인과 궁녀 전체가 보이는 일련의 반응을 통해 나타난다. 운영은 남녀간의 정을 긍정하고 이성을 그리워하는 시를 썼다가 안평대군과 한차례의 갈등을 겪으며, 마침내는 김진사를 만나 애정을 추구하며 궁궐 담을 넘어서까지 애정을 추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월장 행위에 의한 애정 성취는 바로 성의 표출을 제한하고 금기시한 왕조사회의 규범에 대한 항거임과 동시에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 생각된다.

<운영전>을 통해 본 성 억압과 저항의 문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운영전>에서 性의 억압은 단순히 개인적 성의 표출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원적 성정의 억압이며 나아가 그것이 제도화됨으로써 권력에 의한 여성통제 기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봉건적인 가부장 제도하에서 비롯된 <운영전>의 성 억압과 그 저항은 결국 권력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인간성을 지키고 스스로의 의지로 최소한의 삶이나마 꾸려보려는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현실에서는 이같은 의지마저도 가능하지 못했기에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운영전>은 당대의 성 억압적 현실의 한 극단적 모습과 그에 대한 저항적 삶의 일단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